

읽을거리 풍성한 지구촌의 소설들

새해 맞아 독특한 외국소설 출간 봇물

새해 첫달, 다양한 국적의 소설들이 서점가에 선보이고 있다. 사라마구·마르케스·모디아노·슐링크 등 굵직한 작가를 비롯해 3세계 작가의 소설들이 각양각색의 형식과 주제, 그리고 독특한 이야기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모습이 다양한 만큼 읽을거리도 풍부하다.

현대인의 우울한 자화상 그리

여운이 길게 남는 소설로는 추리작가로 명성을 날린 독일 베른하르트 슈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김재혁 옮김, 세계사)가 있다. 애육과 홀로코스트의 소재를 적절하게 조합한 탄탄한 구성력으로 강한 흡인력을 지닌다.

성숙한 여인 한나는 황달에 걸린 열다섯 살짜리 소년 베르크와 비정상적인 애정행각을 지속하며 책읽기를 요구한다. 법대생이 된 '꼬마'는 법정에서 자신이 문맹이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나치에 복무한 죄를 시인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한나를 목격한다. '꼬마'는 그녀가 문맹이란 사실을 밝힐까 고뇌하지만 결국 묵인하고 만다. 밤마다 베르크는 소리내어 책을 읽고, 마침내 그녀에게 테이프와 녹음기를 보낸다. 열여덟 해가 흐른 뒤, 그녀는 석방일 새벽에 자살을 결행한다.

그녀가 죽은 뒤에 베르크는 죄책감에 빠진다. 그러나 그의 뒤늦은 각성은 무감각해진 현대인의 자화상일 뿐. 작가는 녹음기를 통해 글을 터득함으로써 오히려 유대인 학살에 대한 죄값을 죽음으로 결산한 한나와 도덕적 해이의 상징인 '꼬마'를 대비해 현대인의 우울한 자화상을 비판한다.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독특한 문체를 구사하는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눈 먼 자들의 도시》(정영목 옮김, 해냄) 또한 현대인의 우울한 자화상을 묘사한 작품.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분노와 사랑에 대해 곱씹는다.

어느날 갑자기 눈 먼 사람들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신병동에 격리된다. 수용소와 먹을 것을 장악한 깡패들은 다른 눈 먼 자들의 금품을 빼앗고, 여자를 공출해 겁탈까지 한다. 유일하게 눈을 뜨고 있는 의사부인은 보다못해 깡패 두목을 살해한다. 폭동이

일어난 틈을 노려 눈 먼 자들은 탈출하지만 도시는 이미 눈 먼 자들로 가득차 있었다. 의사부인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쓸어갈 듯 쏟아지는 빗속에서 눈 먼 자들을 씻기며, 두 여자에게 "이제 일을 시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눈이 두개이고 팔이 여섯인 유일한 여자예요"라고 말한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사악한 모습을 겪은 뒤에 사람들은 눈을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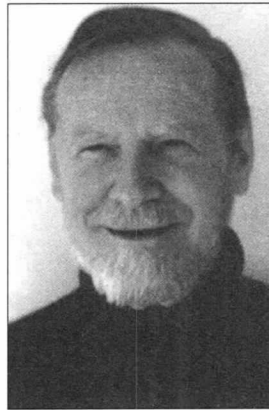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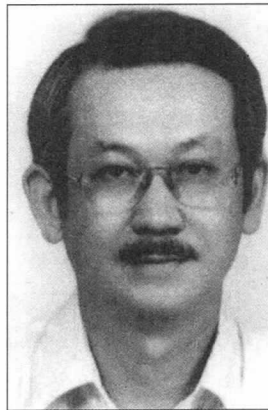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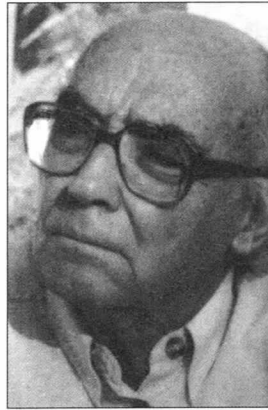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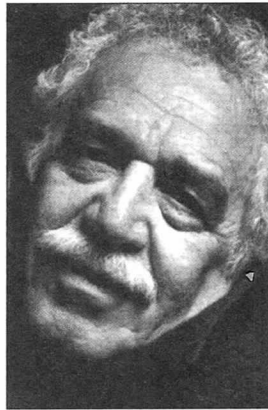
작가는 독자에게 어느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묻고 있다. 자신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오히려 눈을 뜨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감춰진 부도덕성이 더욱 처참하다고 역설한다.

자아 찾기에 나선 작품들

생존경쟁의 논리에 간혀버린 현대인.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프랑스 문단이 거둔 탁월한 작가로 평가받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김화영 옮김, 문학동네),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많이 쓴 미국 작가 말콤 보세의 《길》(김옥수 옮김, 끌리오), 그리고 《링》을 발표해 일본 최고의 호러 작가로 평가받은 스즈키 코지의 《햇빛 찬란한 바다》(김남주 옮김, 씨엔씨미디어) 등은 소재는 다르지만 '자아 찾기'라는 공통의 주제를 담고 있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의 '나'는 흥신소에서 탐정 일을 일하다가 퇴직한 인물로 자신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잃어버린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실루엣 같은 기억을 더듬지만 그럴수록 '나'는 기억 저편에 등장하는 인물과 다르게 느껴진다. 인간의 실존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는 작가는 탈색된 기억의 복원을 통해 '자아 찾기'를 시도한다.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길》도 주인공 알준의 인생역정을 통해 자아 찾기에 나선다. 여행길에 나선 최상류층 출신 알준은 강도를 만나 여동생을 잃고 자신마저 군대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다. 전사가 된 그는 전쟁에서 패해 노예가 된다. 조각가로 살게 된 그는 몇년 동안 화강암 암반에 매달려 두루가 여신을 조각하기 위해 고뇌한다.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그는 마침내 위대한 조각품을



왼쪽 왼쪽부터 마르케스·사라마구·슐링크·마리 다리외세크·왕원성·말콤 보세.

완성하고, 여동생도 만난다. 소설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임신한 몸으로 자살을 기도한 사유리는 회귀 유전병을 앓고 있다. 애인 요이치는 현실도피를 위해 참치잡이 배를 탄다. 풍랑으로 바다에 떨어진 그는 49시간 동안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며 자신과 사유리의 처지를 되새긴다. 화자인 의사는 "생활은 결코 편치 않을 테지만 낙원을 꿈꾸는 삶이란 환상일 뿐"이라는 말로 《햇살 찬란한 바다》를 마무리한다.

현대 사회의 모순도 고발

하루에 두시간 이상 글을 쓰지 않기로 유명한 대만 대표작가 왕원성은 《아버지를 찾습니다》(송승석 옮김, 강)를 통해 현대 사회의 모순을 고발한다. 아들의 멸시를 학대로 받아들이 수밖에 없던 아버지와 죄의식 없이 아버지를 찾는 아들을 대비시켜 현대인의 비윤리성을 파헤친다.

82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마르케스는 《납치일기 1·2》(권미선 옮김, 민음사)를

통해 조국 콜롬비아의 부패한 사회상을 증언한다. 르포 형식을 빌려 인질사건을 매개로 마피아와 정치권을 대비시켜 콜롬비아의 비극이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있다.

한편, 영국에 귀화하여 영국문단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스오 이시구로의 《떠도는 세상의 예술가》(손영도 옮김, 예문)는 노화가의 회상을 매개로 일본 군국주의에 복무한 예술가의 역사적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를 모색한다. '열린책들'이 펴내는 프랑스 문제작 시리즈 《암페지》·《사랑의 파괴》·《저물녘 맹수들의 싸움》과 영국의 부커상 수상 작가인 존 버거의 《결혼을 향하여》(해냄) 등도 눈에 띈다.

새해 벽두부터 국적이 다양한 소설들이 선보이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순천현대 독문과 김태현 교수는 "탄탄한 번역을 바탕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은 작품인지 신중히 검증해야 한다. 상업성에 편승한 것이라면 경계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 오완진 기자